한국불교 포교 화두 '새싹불자 신규 유입'

조계종 포교원 전법중심도량 간담회서 한목소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국 전법중심도량 62개 사찰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부문 집중
저조한 출산율, 법회에도 타격
부모만의 별도 교육 · 지원 필요


새싹불자의 유입이 한국불교 포교 화두로 떠올랐다. 사진은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의 공연.

계속해서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현대사회 사찰의 포교 화두는 줄어드는 새싹불자들의 신규 유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가 공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 같은 고민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이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법중심도량 간담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두됐다.

현재 포교법과 종령에 의해 지정된 전법중심도량은 전국 62개 사찰이다. 어린이 · 청소년부문이 54곳으로 가장 많고, 어린이 · 청소년 · 장애인 부문 4곳, 어린이 · 청소년 · 새터민 부문 2곳, 장애인 부문이 2곳이다. 교구로는 직할교구에서만 총 24개 사찰이 참여해 가장 많았다. 직지사, 은해사, 쌍계사, 금산사, 선암사, 선운사, 봉선사는 전법중심도량 사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는 전국 전법중심도량 20여 곳의 지도법사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계층포교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어린이 · 청소년법회 인원 감소, 청소년기 학업으로 인한 사찰과의 인연 단절을 꼽았다.

밀양 용궁사 어린이법회 관계자들은 2분기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위기상황을 언급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지도교사는 "요가와 명상 등을 활용해 법회를 운영하고, 여러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아이들 수가 줄어들었다"고 현황을 전했다.

서귀포 하논봉림사 명현 스님 "갈수록 어린이법회 참석률이 낮아진다. 새로운 유입이 필요한데 다른 사찰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인천 수미정사 금선 스님도 "인천은 중학교 2학년부터 학교 시험이 중요해지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 절에 나오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언을 얻고 싶다"고 밝혔다.

전법중심도량 사찰 관계자들은 포교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지도교사 인재 인프라 구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금선 스님은 "작은 사찰들은 신도가 아닌 이상 지도교사 초빙이 어렵다"며 "지도교사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전법중심도량 사찰끼리 공유하고 연결해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지도교사의 고령화'를 언급한 부산 관음사 최미선 국장은 "아이들도 젊고 예쁜 선생님을 좋아한다"며 "대학 불교동아리 학생들과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들을 위한 장학제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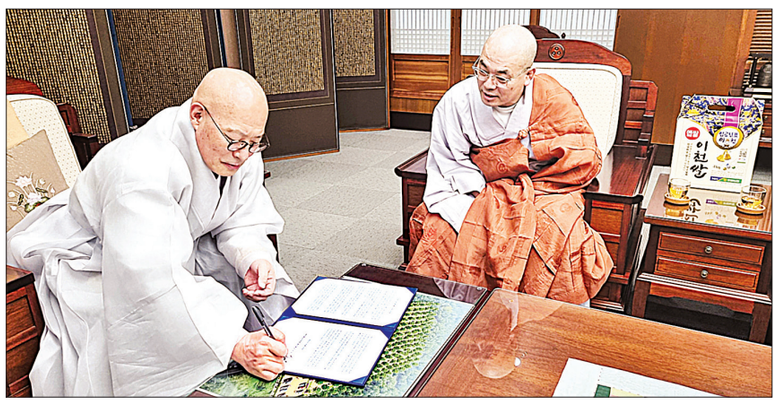
조계사 포교국장 정수 스님은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부모 교육을 강조했다. 어린이법회에 참석하는 아이들과 달리 부모는 각자 생애에 따라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

스님은 "여러 사찰이 어린이법회 예산은 책정하지만 부모를 위한 것은 많지 않다"며 "부모의 신행, 교육 등이 강화되면 어린이법회도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범어사와 부산 관음사의 어린이 포교 우수사례 공유도 이뤄졌다. 범어사는 현재 월 1회 국제포교사회 청소년부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 영어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제14회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수도권 사찰들이 준비한 응원이나 발표 구성이 자극이 됐다. 또한 3년째 운영 중인 어린이합창단, 문화체험을 테마로 한 부산불교연합회의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어린이 불교심리상담 등이 소개됐다.

"이천오층석탑 환수, 전방위로 돕겠다"

진우 스님, 석탑환수위 예방서 '석탑 환수 지지 입장문' 서명


이천오층석탑 환수 지지 입장문에 서명하는 진우 스님.

일본 오쿠라 호텔 슈코칸(集古館)에는 고려시대 조성된 이천오층석탑이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한반도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이천시와 시민들은 약 15년 전부터 석탑 환수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천시민들의 이천오층석탑 환수 운동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스님은 9월 20일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불교가 해야 할 일을 이천시민들이 나서 환수운동을 전개해주셔서 감사하다. 종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환수위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평택 자비사 주지),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시),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 이상구 환수위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총무원에서는 사회부장 도심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이 배석했다.

환수위 공동위원장 보문 스님은 "매년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3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현재는 다시 환수위를 정비하고 제2의 환수운동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수운동 시작 당시 총무원장이셨던 자승 스님께서 환수 운동을 지지해 주셨다"면서 "오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오쿠라 호텔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다. 환수운동이 재개되는 만큼 총무원장 스님의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겠다"며 "한일불교도 모임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환수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이천오층석탑 환수 지지 입장문'에 직접 서명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진우 스님은 지지 입장문을 통해 "이천오층석탑은 일제로부터 무단반출됐다는 조선총독부의 명백한 근거 문서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국외소재의 우리 문화재"라며 "이천오층석탑의 경우 반출된 경위가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 바 그 어떠한 문화재보다도 조속히 돌아와야 할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불교계의 환수 지지 성명이 종교적 · 문화적 측면이 한일 교류에 있어 물꼬를 틀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불교의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가 일본 오쿠라재단에 펼치는 '이천오층석탑' 환수 활동에 지지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Weekly 자비나눔

수성 대종사 '천년을 세우다' 원력 보태

대구 정토사 회주 수성 대종사는 9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이 함께했다.



불사 원만 회향을 발원한 수성 스님은 백송 나무를 이용한 종단 차원의 '치유의 숲' 조성을 제안했다. 스님은 50여 년 전 조계사에서 받은 백송나무 씨앗을 정토사로 옮겨와 키우기 시작했고, 현재 500그루로 성장했다. 이를 활용해 법성게를 구현, 210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길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수성 스님은 "백송은 일반 소나무보다 향이 뛰어나고 천연 멜라토닌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한 귀한 묘목"이라며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나 마땅한 공간이 있다면 종단 차원의 백송 산책 공원을 조성해 스님과 불자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백송 숲길이 조성되면 불자들에게도 우수한 휴게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성할 만한 부지를 찾아보겠다"라고 약속했다.

김내영 기자

청룡사,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2000만원

서울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은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청룡사 주지 진홍 스님은 "좀 더 일찍 마음을 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하다. 종단 종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청룡사가 전통사찰이지만 건물 등기가 안 돼 있다"며 종단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등기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이 적지 않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종단과 관계기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금천선원 '암 진단금 보험금' 기부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의 평안을 염원하며 암 진단 보험금을 선뜻 기탁한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 금천선원 주지 정섭 스님과 조동현 · 차영희 불자는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기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조동현 · 차영희 불자가 기부한 1000만원에 신도회가 모은 기도복지기금을 합쳐 마련됐다.

암 진단 보험금으로 불사금을 마련했다는 차영희 불자는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할 당시 '나라 안팎이 시끄러울 때 경주 남산 마애



부처님을 바로세우면 나라의 평안도 찾아올 것'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다"며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꼭 동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마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며,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내영 기자

